

좋은 인연 (상)

이경주 (서울 동작구 대방동)

나는 최근까지도 불자가 사주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일부 스님들은 공공연하게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해주었고, 개인적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사랑과 결혼을 하면서 겪은 일들과, 불교와 진정으로 만나면서 알게 된 짧은 지식을 정리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바로 이에 대해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감정상의 문제라 소개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직도 사주나 궁합이 결혼을 하는데 걸림이 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 심지어는 자식 도시락 싸주고, 남편 아침을 챙기는 것보다 기도도량에 가기 위해 버스타고를 맞춰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까지도 생길 정도였다.

그렇게 신심 깊은 불자였지만 엄마는 사주팔자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은 별 볼일 없는 사람도 사주가 좋으면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느 스님의, 아들 둘을 낳아야 부부가 백년해로 할 수 있다는 말에 연이여 딸을 두었으면서도 아들 둘을 기어 이 낳았을 정도였다.

그는 당시 제법 큰 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시험에 합격해도 결혼은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였다. 이 말은 궁합이 안 좋으니 당장 헤어지라는 의미였고, 좋은 궁합이 결혼의 필수라고 생각하던 가족은 내가 그를 만나는 것을 답답지 않게 여겼다.

이전에 우리의 만남에 호의적이던 감정은 반대가 되었고, 나와 비슷한 가정환경의 가까운 친구도 이 말을 듣고는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조언할 정도였다.

나는 다른 곳에서 궁합을 봐서 좋다는 얘기를 듣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림 · 문병성

궁합 나쁘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결혼 반대 우리 두 사람은 만날수록 서로 신뢰 쌓여 식구들에 죄짓는 생각 들어 마음 닫기 시작

어느 늦가을, 외로운 마음에 나간 미팅에서 그를 만났다. 테이블에 앉으려는데 바닥에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 동전을 줍는데 "그거 제 건데요"하며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만약 오늘 미팅이 잘 되면 이 건 하늘의 뜻이겠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물론 궁합을 보면서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좋은 궁합은 다른 부족함 점들을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조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

했다. 그래서 친구와 혹은 엄마와 무수히 많은 점집을 드나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좋은 이야기로 들었는데, 엄마는 한번 인식이 되어서인지 나쁜 이야기만 들으시는 것 같았다.

딱히 헤어지자고 말할 명분도 궁합 이외에는 없었다. 한 번은 궁합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연락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매듭을 짓고자 만나기로 했다.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보았지만 다른 사람과 잘 살 자신이 솔직히 없었다. 지금 돌이켜 보니 이런 마음들이 바로 인연이라는 증거였는데도 그때는 그것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기보다 내 마음을 돌릴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현실에 답답했음 뿐이었다.

그 때의 나를 돌이켜 보건데 공부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계획했던 시나리오에 그가 맞춰주지 못한 것을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다.

사춘기 때부터 이상형을 상상하곤 했는데, 똑같은 않았지만 그에게서 문득문득 이상형의 실루엣이 겹쳐짐을 발견할 때의 설렘은 참으로 신선하고 반가운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으로 1년을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설레는 마음은 '좋은 인연'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집에서 둘 사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엄마는 궁합을 무시하고 결혼한 이모가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 모든 게 궁합이 안 맞는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 짓곤 하셨을 정도였다.

분명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해석이 달랐으니 말이다. 어쨌든 다시 간 곳에서도 '잘벽궁합'이라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를 만나러 가는 동안 내리는 함박눈에 그만 마음이 풀려 결국 재미있게 놀다가 궁합 이야기는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그 후에도 몇 년을 만나는 동안에도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서로 헤어질 정도의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고 상대를 더욱 신뢰하는 마음만 깊어갔다.

궁합 때문이었을까? 그는 몇 년간 준비하던 시험에 간발의 차이로 자꾸만 실패하였다. 시험이라도 합격했어야 당당하게 그와의 만남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일반 직장에 들어간 그가 우리 가족의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청년 취업난에 나라가 들쭉이던 상황에서 취업을 한 것만도 기특한 일인데 오히려 시험에 떨어진 실패자라는 낙인까지 찍혀버린 것이다. 궁합문제에 이어 시험 실패자로서의 만남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계속)

그 무렵, 우리의 만남에 호의적이었던 엄마가 그의 생년월일을 알아오라고 하셨다. 두 언니의 결혼 때도 형부의 생일을 몰랐던 기억이 떠올랐고, 결혼에 필요한 통과의례로 생각한 나는 주저 없이 그의 생년월일을 말씀드렸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나는 불교와 사주궁합의 특별한 연관성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불자집안은 큰 결정이나 결혼에 있어 사주와 궁합을 보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결국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엄마의 추가 설명으로 인해 가족의 분위기는 더욱 나빠져 갔고, 가족 중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친구마저 말했고, 주변에 어떤 이가 궁합이 안 좋았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좋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편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 죄짓는 기분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동안 가족에게는 그에 대해 얘기하기 힘들어지게 되었고, 내 스스로 마음을 닫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급기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집안의 결혼 반대로 고민하던 남녀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남의 일 같지 않게 들렸다. 그와 헤어지고 궁합 좋은 다른 남자와

그 때의 나를 돌이켜 보건데 공부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계획했던 시나리오에 그가 맞춰주지 못한 것을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되어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정동문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전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탈종공고

- 사찰명: 칠봉사
- 주 지: 묘련화(임점순)
-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435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제주 무량사
- 주 지: 영오(양두영)
- 주 소: 제주 외도1동 2215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053)964-0858
휴대폰: 011-804-1748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



오랜 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의 15여종의 첨가물을 20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으로 50여년전 법전 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비장된 비법을 전수 받은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장질환 모든 위장질환이 회복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 할수있는 선약을 구하려 우리나라에 직접 다녀 갔다는 전설의 「不老化精」은 MBC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사극 「대장금」의 극중 한상궁이 땅속에서 20년간 묻어둔 「감시초」에서 비방한 비법으로 진액중의 진액으로 만든 「不老化精」입니다.

◆ 가격: 정가 칠십만원(2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농협 705-12-337974 (예금주: 이준식)

전 화 : (053)257-7032
휴대폰 : 011-1756-9550